

# 코로나 취업 한파에 깊어지는 시름

### 기업 채용일정 미루거나 권고사직·입사취소도 빈번 취준생, 도서관 휴관에 카페 등 전전... "비용도 부담"

성모(32·제주시 화북동)씨는 올 초 5년 간의 '백수 생활'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5곳의 회사에서 지원했지만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다. 올 3월 도내 한 중소기업에 최종 합격했다. 출근일만을 기다리던 그는 며칠 뒤 "이번에는 채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회사측의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채와 각종 자격증 일정이 연기돼 취업 계획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인 데다 성씨처럼 최종 합격 후 '입사 취소'를 통보받는 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해 취준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홍모(27·제주시 노형동)씨는 지난해 7월부터 도내 한 면세점 소속 물류직에서 일하던 중 올 5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홍

씨가 소속된 부서 내 5명의 직원이 권고 사직, 퇴사 등으로 모두 일자리를 물러나 결국 부서가 통째로 없어졌다. 홍씨는 "남은 힘을 짜내 버텨야 하지만, 기약이 없는데다 새로운 취업의 문도 열리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항공사 승무원 준비생들의 현실도 팍팍하긴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국내외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사들의 채용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올해로 4년째 승무원을 준비 중인 송모(27·서귀포시 대정읍)씨는 올 초 대형 항공사 공채가 뜬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도전"을 하려 했다. 하지만 때마침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상반기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 공항 주변에서 일하는 이들이 줄줄이 실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송씨는 "승무원이 꿈이지만, 채용도 안 할 뿐더러 항공업계가 워낙 어렵다

는 소식에 심경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취준생들을 괴롭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데, 도서관 휴관으로 카페나 카페형 독서실을 전전해야 하는 처지다.

13일 제주 시내 한 카페에는 독서대를 펴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로 가득했다. 김모(32·제주시 조천읍)씨는 대기업 생산직 취업을 준비하다 계속된 연기로 계획을 틀어 공기업 취업 준비에 매진 중이다. 그는 매일 동네 카페에서 학생들, 취준생들과 자리 경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매일 커피 값으로 들어가는 돈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카페는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 소음을 감당하며 공부해야 해서 불편하다"며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발길 이어진 지하상가 장맛비가 내린 지난 13일 제주중앙지하상가를 찾은 시민들이 비를 피해 쇼핑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마스크 써야" vs "그냥 태워 줘" 날 더워지니 '마스크 신경전' 고개

### 버스 기사·승객 승강이

마스크 착용을 놓고 대중교통 운전사와 승객간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한동안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날이 더워지며 마스크 착용을 놓고 승강이가 다시 빈번해지고 있다.

13일 오전 제주~서귀포시를 운행하는 한 버스에서 60대 초반의 승객과 운전사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승강이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 승객은 "그냥 태워줄 것"을 요구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이다 그대로 버스에서 내렸다.

11일 저녁 서귀포시-제주시를 운

행하는 버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주문하는 운전사에게 60대 승객이 "딱딱하게 얘기한다"며 반발한 것이다. 승강이는 금세 멈춰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승차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마스크 착용 후 승차할 것"을 주문하는 운전사에게 한 학생이 "알겠다"며 안성을 높였다. 일부 승객은 "날씨도 후텁지근한데 마스크 착용으로 더 덥다. 에어컨을 가동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

하지 않은 승객들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한다. 한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초기에 승강이가 다소 발생했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적잖은 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시비가 이어지고 있어 홍보·안내표지 부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얼마 전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가 발생하면 폭행·운행 방해 등 관련 법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현영희기자 yihyeon@ihalla.com

## "교육재난지원금 차별 안돼" 대안교육협 성명 통해 촉구

제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정영일)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차별 없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차별 없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제주도청과 교육청의 고질적인 책임 회피로 허언이 될 유기에 처해있다"며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이로 인해 교육희망지원금은 교육실망지원금을 넘어 교육절망 지원금이 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조례와 법적근거 타당 하지 말고 도청과 교육청이 당장 교육재난지원금 논란 종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400여명으로 추산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련 협의체 구성,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제주 36일만에 코로나 격리환자 '0'

### 14·15번 확진자 퇴원 2주간 자가격리 없어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인 14·15번 환자가 잇따라 퇴원하며 제주는 '격리환자 0(제로)'를 기록 중이다.

지난 5월 3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지난 13일 오후 5시경 퇴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15번째 확진자인 A씨의 퇴원으로 이날 13일 현재 지역 내 격리치료 중인 확진환자는 없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은 5월 8일 이후 36일 만에 격리환자가 0명인 상태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제주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당일 입도해 자가 격리를 진행 중 다음 날(30일) 오후 7시쯤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경우 퇴원 후 14일간 이뤄졌던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5월 19일부터 적용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재양성자 격리해제 후 관리 변경 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5일 이태원 클럽 방문 이후, 다음날인 6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지역 14번째 확진자 B씨가 지난 12일 오후 1시 30분쯤 퇴원했다.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 이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B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백금탁기자

## 장마 소강상태... 17일부터 다시 비

주말동안 비날씨가 이어진 제주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오는 17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5일 오전에는 해안과 중산간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한라산 사계비동산에 148.5mm의 비가 내렸고 고산 126.9mm, 유수암 124.0mm, 서광 117.0mm, 표선 69.5mm 등 도 전역에 골고루 비를 뿌렸다.

## 소방유물 제보 이벤트

이번 주는 15일 구름 많고 16일 흐린 날씨를 보이던 17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흐리고 비날씨가 예보되고 있다. 그 밖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기상청은 "15일 오전까지 대개 하층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면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바다안개가 유입돼 해안과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는 8월 7일까지 소방유물 제보 이벤트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를 진행한다. 소방 관련 유물을 찾아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다.

소방유물 소유자 등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 제보 홈페이지(<https://firemuseum.or.kr>)에 소장 유물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종료 후 응모자 180명에게는 경품이 주어진다. 이상민기자

기종명	환풍기 KYF-90A	환풍기 KYF-90B
크기(mm)	900x900	900x900
높이(mm)	360	360
형식	축류식	축류식
축능력	0.65kw	0.65kw
회전수	860 rpm	680 rpm
재질	스텐레스, 알루미늄	스텐레스, 알루미늄
풍량	135m³/min	117m³/min